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 (제4보) - 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

강경자[†] · 정수진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A Study in the Perception of the Harmony of Coloration in Traditional Korean Dres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Part IV) - On the Contrast Coloration -

Kyung-Ja Kang[†] · Su-Jin Je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4. 12. 22. 접수)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harmony of contrast color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dress as the subject of the study for women's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America. The sense of harmonious coloration for 64 colorations was evaluated based on a yellow and a green Korean jackets, to be contrast colorization, by combining four different tones, vivid, light, dull, and dark tones in a purple and a blue skirt with a yellow jacket, a red and a purple skirt with a green jacket. We tried to make sure of the cultural difference by the distinction in the perception of women's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America.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In the contrast coloration of a yellow jacket with a purple and a blue skirt, Korean women students, generally, perceived that the coloration that skirt is more dark than jacket, dull and dark tone is harmonious. On the other hand, American women students perceived harmonious skirt tone is various depending on the jacket tones. In the coloration of a green jacket and a red skirt, the women students of two countries are in common that the coloration of a vivid skirt with a vivid, a dull, and a dark jacket are harmonious. However, Korean women students indicated that a light jacket with a dark tone skirt as a harmonious coloration. American women students evaluated that various tones of coloration as a harmonious coloration. In the coloration of a green jacket and a purple skirt, Korean women students perceived that the coloration is incompatible coloration. American women students perceived the coloration is congruous in the coloration of a dull and a dark tone jacket and skirt. In the response of the perception for 64 contrast coloration, Korean students evaluated 14 sets and American students judged 28 sets as harmonized colors. Therefore, it drew the conclusion that Korean students had the sense of harmonious coloration of more narrow range than American student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wo cultures in the standard for contrast coloration.

Key words: Contrast coloration, Harmony, Tone, Perception, Korean dress; 콘트라스트 배색, 조화, 톤, 지각반응, 한복

[†]Corresponding author
E-mail: kjkang@gsnu.ac.kr

I. 서 론

복식에서의 색채는 가장 먼저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것은 물론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들 색도 색채 단독으로 미의 가치가 평가되기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조합될 때 배색으로서의 좋거나 나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노랑이나 보라를 따로 볼 때는 좋아하지 않아도 이 두 색의 배색은 좋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복에서 어떤 색이 어떤 색과 배색이 잘되고 어떤 색과는 배색이 잘 안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민족적으로 좋아하는 색이 다를 수 있어 한국문화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도 미국 문화 속에서 반드시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자, 2001). 또한 이러한 느낌은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다. 조화판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나 개인의 차이는 조화판단에 있는 공통인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문화 간의 상대적인 차이의 경향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의복에서의 색상조화는 두 색 또는 그 이상의 색들 간의 관계에서 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시켜 하나의 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게 된다면 색을 조합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또한 어떻게 배색하는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를 계속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층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착용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한복은 그 구조가 다양한 색상조합을 가능하게 하므로 한복을 통한 배색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한복의 다양한 배색방법을 통해 조화감을 밝히는 것은 어떤 질서나 조화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색상, 명도, 채도에 변화를 준 모든 배색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강경자, 2001, 2002, 2004)에서 다루지 못한 조화방법으로 서로 색의 성질이 대비되는 콘트라스트 배색 즉 저고리 색(노랑, 초록)을 기준으로 보색 및 분보색 조화가 되도록 치마색을 각기 두 가지씩 선정 한 후 치마·저고리의 톤에 변화를 주어 상·하의에 대비되는 색상과 톤 차이에 따른 조화감을 연구코자 한다.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판단에서 문화 간에 차이가 큰 배색과 그 차이가 적은 배색이 존재한다면 콘트라스트 배색의 조화

방법을 통해서도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 배색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 여대생이 느끼는 조화영역과 부조화영역을 밝혀 객관적인 원리로 체계화시킴으로서 색채의 표현력을 넓힐 수 있는 자료 활용은 물론 어떠한 색의 조합이 어울리고 아름다운지 그 구성기준을 밝혀 배색 조화의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다양한 한복배색 방법 중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보에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복에서 치마·저고리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감 정도를 밝힌다.
- 2) 한복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에서 문화 간의 차이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초기의 색채조화론은 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았으나 그 다음 시대에는 보색이론을 근거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주로 색의 삼속성 중 색상에 관한 것이었으나 점차 색상 이외의 명도나 채도에 관해서도 연구하게 되어 오늘날의 색채조화 이론에 접근하게 되었다. 색채의 사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색채론과 이에 따른 효과를 알아야 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적절히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Birren, 1978, p. 43).

현대의 색채조화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M. Chevreul 이 색의 조화와 대비의 원리(the principle of Harmony and contrast)라는 저서에서 색의 삼속성에 근원을 둔 유사성과 대비성의 조화에 대해서 원리를 세웠는데 이 원리는 그 후의 다른 조화론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유사적 조화와 대비적 조화로 구분하고 대비적 조화에는 같은 색에서 명도의 차를 극단적으로 벌여지게 배합시킴으로서 얻어지는 명도대비에 따른 조화, 색상의 차를 크게 두어 배합시키는 색상대비에 따른 조화, 색상과 거리가 먼 보색끼리의 대비로서 이때에 명도를 대비시켜 더욱 대비효과를 나타내는 색채대비에 따른 조화가 있다고 하였다(유송옥, 1996, p. 201). 특히 색상 콘트라스트는 적과 청록, 적과 청색의 조화처럼 보색과 반대색으로 대립관계를 살린 부조화스러움과 저항감이 큰 배색이며, 유품성이 높아 젊음과 활력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색상 콘트라스트를 할 경우 각도의 범위는 색채 시스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지만 보통 좌우 165-180도 범위를 반대색상이라고 말하고 다른 정의로는 분기보색, 분보색이라고도 하며 보통 150도 배색을 말한다(김영자, 1992, p. 6). 보색인 2가지 색을 병치할 때 색들이 그 특성을 상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대립감이 조화의 원리가 된다(김수석, 1993, p. 128). 즉, 색상에서의 모호한 관계가 2색 조화에서 부조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보색배색은 상호가 순색일 경우 자극이 강렬하기 때문에 백색을 가하여 얇게 하든지 아니면 흑색을 혼합하여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완전한 보색끼리 보다 약간 옆으로 비친 보색끼리의 조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보색끼리의 분량조절에 관한 문제이다. Goethe(1980)는 제 1차 3원색의 명도를 추정해서 색면의 비례를 노랑:빨강:파랑=3:6:9의 비례를 얻었고 보색대비의 경우 그 비례는 노랑:보라=9:3=3:1, 빨강:녹색=6:6=1:1과 같다고 하였다. 즉 노랑은 보라보다도 명도가 3배 높기 때문에 면적에서 1:3의 비율을 사용해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색에서 색채 대비가 배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색과 색의 대립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색채 상호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색상, 명도, 채도가 모두 거의 중간 정도의 차일 때는 조화되지 않는다. 조화에는 통일과 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들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Ostwald, Munsell, Moon과 Spencer(1944) 등의 색채조화론에서 공통적인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한 배색과 그 효과를 살펴보면 색상을 주로 한 배색은 동일색상의 명도차나 채도차에 의한 배색이다. 이 배색은 정적이고 통일된 효과가 있으나 때로는 현혹, 혼돈되기 쉽다. 유사한 색의 배색은 온화한 감을 주며 친근감과 융화성이 있다. 그러나 어두운 황색은 녹색을 그리고 적색의 밝은색과 어두운 색은 자주색을 띄므로 색상간의 거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비색상은 색상차가 클 경우 화려한 감을 가지며 자극적이거나 때로는 불쾌감을 줄 때도 있다. 이때 명도나 채도에 변화를 주어 불쾌감은 적어진다. 특히 명도를 주로 한 배색의 경우 적색의 명도를 높여서 청록색에 대비시키면 순색보다 배색감이 좋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와 같이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차원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기도 하며 의복착용자의 표현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Delong, 1987, p. 91-92). 은소영 외(2002)은 의복배색을 배색 연출 방

법에 따라 대조배색, 조화배색, 액센트 배색으로 분류하여 시각적 감성 차이를 분석하고 유풀한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에 대조배색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박혜령(1996)은 배색에서 명도차가 큰 경우 의복 디자인 선에 따라 유의한 착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금기숙(1990)은 조선복식의 색조화 방법상의 특징은 강렬한 보색대비보다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대비가 대부분이며, 명도가 낮은색을 주로 치마에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정옥 외(1995)은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에서 의복색 변화에 따라 동일디자인의 의복이라도 의복이 갖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하였다. 이현화, 박찬부(1997)는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 중 색상조화가 중심특질이 되어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혜숙, 김재숙(1998)은 한복의 상하배색이 상하동색보다 시각적으로 강하게 지각된다고 하였고 한복착용자의 상하배색 이미지는 저고리색과 치마색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치마색보다 저고리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강혜원, 고애란(1991)은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 배색을 노랑과 보라로 조합할 경우 현대적으로 지각하여 중년여성들이 여대생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강경자(2001, 2002)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복배색에서 톤 인 톤,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판단을 구하여 주관적인 반응을 수량적인 방법으로 객관화시킨 결과 톤 인 톤보다 톤 온 톤 배색의 조화범위가 넓게 나타나 색상보다 명도차가 있는 쪽의 배색이 조화-부조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한국 여대생은 색상과 톤에서 차이가 있는 배색을, 미국 여대생은 동색이나 동일한 톤의 배색을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조화감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독자적인 개념을 가질뿐만 아니라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색상의 조합 즉 색상을 어떻게 짜맞추는 것이 사람들로 부터 아름답고 어울리는 배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색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마·저고리의 색상을 콘트라스트 배색이 되도록 색상과 톤을 변화시켜 조합할 경우 톤 인 톤 배색이나 톤 온 톤 배색과는 또 다른 구성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과 자극물 평가 및 조화감 척도방법은 선행연구(1보)와 동일하게 하였다. 자극물은 28가지(7색, 4톤) 치마색과 12가지(3색, 4톤) 저고리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개의 실험배색으로 선정, 조사 되었다. 그러나 본 보에서는 저고리색을 기준으로 노랑저고리의 보색은 보라, 파랑으로 초록저고리의 보색은 빨강, 보라로 선정하여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각각 4가지 톤인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이렇게 선정된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을 각각 보색 및 분보색 배색이 되도록 상·하 배색을 조합하여 총 64개의 자극물 [(저고리색1×치마색2×저고리톤4×치마톤4)×2] 을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하였고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Red)	5R 4/14	5R 8/6	5R 5/6	5R 2/6
노랑(Yellow)	5Y 8.5/14	5Y 8.5/6	5Y 7/6	5Y 3/4
초록(Green)	5G 5/10	5G 8/4	5G 6/4	5G 2/4
파랑(Blue)	5B 5/10	5B 8/4	5B 5/4	5B 2/4
보라(Purple)	5P 5/10	5P 8/4	5P 5/4	5P 2/4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199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여대생은 경상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83명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초-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고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한복의 배색은 전통한복에서 사용하는 저고리색인 노랑, 초록을 기준으로 하여 노랑색 저고리에는 보라, 파랑 2가지 색상의 치마색을, 초록색 저고리에 빨강, 보라 2가지 색상의 치마색을 보색과 분보색 대비가 되도록 각각 조합시켰다. 조합된 저고리와 치마의 톤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조작하여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64개의 저고리와 치마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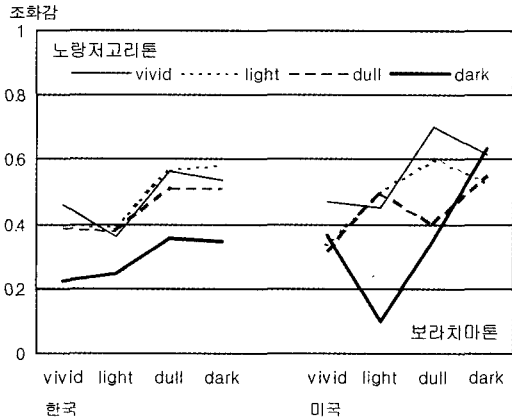
1. 노랑저고리와 보라치마 배색에 따른 조화감 비교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노랑색 저고리와 4가지 톤의 보라색 치마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표 2> 노랑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저고리 \ 치마	vivid			light			dull			dark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vivid	0.459 ^{aA}	0.467 ^{aA}	0.9325	0.396 ^{bA}	0.333 ^{aA}	0.4956	0.390 ^{bA}	0.317 ^{aA}	0.4472	0.223 ^{bB}	0.367 ^{abA}	0.0872	0.0001***	0.7496
light	0.360 ^{bA}	0.450 ^{aA}	0.3322	0.393 ^{bA}	0.500 ^{aA}	0.3109	0.378 ^{bA}	0.500 ^{aA}	0.2265	0.246 ^{bB}	0.100 ^{bA}	0.0046**	0.0024**	0.0136*
dull	0.535 ^{aA}	0.700 ^{aA}	0.0555	0.433 ^{bB}	0.600 ^{aAB}	0.0867	0.436 ^{abB}	0.400 ^{ab}	0.6804	0.206 ^{bV}	0.350 ^{bB}	0.1934	0.0001***	0.0425*
dark	0.537 ^{aA}	0.617 ^{aA}	0.3617	0.581 ^{aA}	0.533 ^{aA}	0.6180	0.512 ^{aA}	0.550 ^{aA}	0.6338	0.345 ^{ab}	0.633 ^{aA}	0.0071**	0.0001***	0.8528
p값	0.0001***	0.1862		0.0001***	0.3205		0.0051**	0.3609		0.0021**	0.0052**			

L.S.D 검증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그림 1> 노랑저고리와 보라치마 배색의 조화감 비교

1) 보라치마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보라치마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노랑저고리에 보라색 치마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미국 여대생과는 달리 한국 여대생은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양국 여대생은 비비드 노랑저고리와 덜, 다크 톤의 보라치마가 조화되는 배색으로, 비비드 저고리와 라이트 톤 보라치마가 가장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노랑저고리 톤을 라이트 톤으로 통제하여 4가지 톤의 보라색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노랑색 라이트 톤의 저고리와 다크 톤 보라치마를 조화가 잘 되는 배색으로, 미국 여대생은 덜, 다크, 라이트 톤 순으로 조화로운 배색이라고 지각하여 비비드 톤을 제외하고는 치마의 명도 변화에 따른 배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노랑 라이트 톤 저고리와 보라 비비드 톤의 치마에 대한 평가는 반대로 톤이 바뀐 노랑 비비드 톤 저고리와 보라 라이트 톤 치마의 조합에서와 비슷한 반응을 보여 라이트와 비비드 톤, 비비드와 라이트 톤의 조합은 상·하 어느쪽에 배색하더라도 부정적인 평가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된 톤의 차이가 적은 즉 명도의 유사성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덜 톤의 노랑저고리를 4가지 톤의 보라색 치마와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은 다크 톤

의 치마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에서는 한국 여대생의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미국 여대생은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의 노랑저고리를 4가지 톤의 보라색 치마와 각기 배색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 여대생은 다크 톤 노랑저고리와 4가지 톤 치마 모두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동일 톤인 다크 톤 치마와는 잘 조화되나 나머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선행연구(강경자, 2002)의 노랑색 톤은 톤 배색에서 다크 톤 저고리와 동일 톤인 다크 톤 치마의 배색을 조화배색으로 나머지 톤과의 배색을 부조화로 지각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조합되는 색상보다 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랑저고리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치마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고리색의 톤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라 한국 여대생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 여대생 모두 라이트, 덜, 다크 톤의 저고리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그 중 비비드 톤의 저고리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라이트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어떤 톤의 저고리라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덜 톤의 저고리와는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양국 여대생 모두 다크 톤의 저고리와 가장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평가하였다. 양국 여대생은 저고리색의 톤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조화감 평가에서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덜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비비드 저고리와는 조화되며, 덜, 다크 톤의 저고리와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공통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에서는 한국 여대생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 미국 여대생은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덜 톤의 보라치마와 라이트 노랑저고리, 반대로 덜 톤의 노랑저고리와 라이트 보라치마와의 배색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국 여대생은 저고리색의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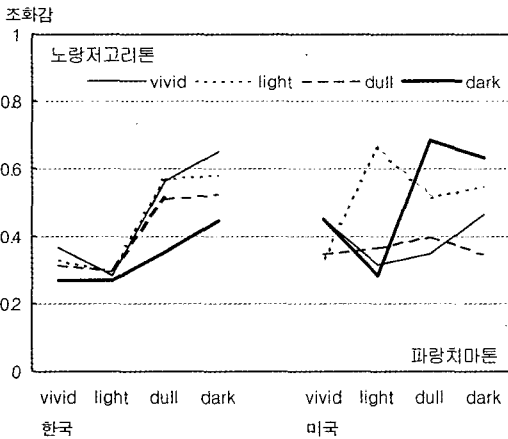
다크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미국 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다크 톤 보라치마는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한국 여대생은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양국 여대생은 차이를 보였다.

2. 노랑저고리와 파랑치마에 대한 조화감 비교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노랑색 저고리와 4가지 톤의 파랑색 치마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3>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 파랑치마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노랑색 저고리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그림 2> 노랑저고리와 파랑치마 배색의 조화감 비교

파랑색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그 조화정도를 <그림 2>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비비드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배색할 경우 미국 여대생은 치마톤 변화에 상관없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에 한국 여대생은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여 덜 톤과 다크 톤 파랑치마와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덜 톤 치마와의 배색은 문화간에 차이가 컸으며 대체로 파랑치마의 톤이 어두울수록 어울리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라이트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파랑색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톤인 덜과 다크 톤의 파랑치마와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을 제외한 3가지 톤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중 상·하 동일 톤인 라이트 톤의 파랑치마와 조합했을 경우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지각하여 한국 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 저고리의 조합에서 어두운 톤의 치마를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명도가 낮은색을 치마에 주로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한다고 한 금기숙(1990)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덜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파랑색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 톤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여 덜과 다크 톤의 치마와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여대생은 4가지 톤 중 어떤 톤의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크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파랑색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여대생의 경우는 덜, 다크 톤과는 조화가 잘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양국 간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노랑저고리와 파랑치마의 분보색 조화배색에서 파랑치

<표 3> 노랑색 저고리와 파랑색 치마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저고리 치마	vivid			light			dull			dark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vivid	0.369 ^{CA}	0.450 ^{BA}	0.3610	0.329 ^{BAB}	0.333 ^{BA}	0.9646	0.315 ^{BABBA}	0.350 ^{BA}	0.6813	0.268 ^{CB}	0.450 ^{BA}	0.0160*	0.0680	0.5788
light	0.283 ^{DA}	0.317 ^{AB}	0.6689	0.300 ^{BA}	0.667 ^{BA}	0.0001***	0.300 ^{BA}	0.367 ^{AB}	0.4030	0.272 ^{CA}	0.283 ^{BB}	0.8846	0.8534	0.0140*
dull	0.565 ^{BA}	0.350 ^{AB}	0.0126*	0.570 ^{BA}	0.517 ^{ABAB}	0.5363	0.510 ^{BA}	0.400 ^{AB}	0.2316	0.355 ^{BB}	0.683 ^{BA}	0.0003***	0.0001***	0.0500*
dark	0.651 ^{BA}	0.467 ^{AB}	0.1176	0.581 ^{AB}	0.550 ^{ABAB}	0.6982	0.524 ^{AB}	0.350 ^{AB}	0.0553	0.446 ^{AC}	0.633 ^{BA}	0.0560*	0.0001***	0.1991
p값	0.0001***	0.4572		0.0001***	0.0795		0.0001***	0.9799		0.0001***	0.0074**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마의 톤을 변화시켰을 때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는 상관없이 4가지 톤 모두 치마의 톤이 어두울수록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각 저고리 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비비드, 덜 저고리는 어떤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여대생이 다크 톤의 노랑저고리와 밝은 톤인 비비드나 라이트 톤의 파랑치마를 조합할 경우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 것은 다크나 비비드, 다크와 라이트 톤 조합용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노랑의 톤은 톤 배색에 대한 선행연구(강경자, 2002)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이들 톤 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색상보다 톤 조합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2) 노랑저고리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파랑치마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노랑저고리의 톤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비드 톤의 파랑치마에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를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의 저고리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라이트 톤의 파랑치마에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를 각각 조합하여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4가지 톤의 저고리와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치마와 동일한 톤인 라이트 톤의 노랑저고리만 조화되는 배색으로 평가하여 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른 미국 여대생의 조화감에 대한 반응은 차이를 보였다.

덜 톤의 파랑치마에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저고리에서 조화감 평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

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톤의 노랑저고리와 잘 조화되며,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과 다크 톤의 저고리와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덜 톤의 파랑치마에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노랑저고리가 조화되고 다크 노랑저고리가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각한 반면 미국 여대생은 이와 반대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강경자, 2002)의 결과와 비교하면, 한국 여대생의 경우, 노랑색 톤은 톤 배색에서는 비비드나 덜 톤의 노랑저고리와 덜 톤인 노랑치마와의 배색을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은 상·하 덜 톤 노랑 배색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상·하 배색을 달리 했을때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톤의 조합에 의한 영향 보다 조합되는 색상의 영향 즉 상·하 이색 배색인 노랑과 파랑색의 분보색조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크 톤의 파랑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톤 순으로,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와 다크 톤의 저고리와 잘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덜 톤의 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배색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어두운 톤의 치마에는 저고리의 톤이 밝을수록 조화가 잘 된다고 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치마 톤과 같은 탁하고 어두운 다크 톤의 저고리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두 문화권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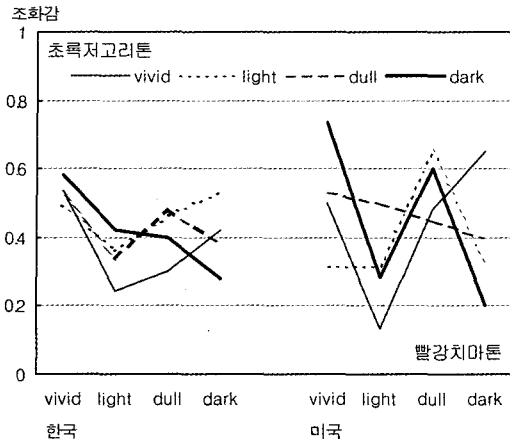
3.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에 대한 조화감 비교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초록색 저고리와 보색조화인 4가지 톤의 빨강색 치마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를 <표 4>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표 4> 초록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저고리 치마	vivid			light			dull			dark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vivid	0.536 ^{aA}	0.500 ^{aAB}	0.7171	0.496 ^{aA}	0.317 ^{bB}	0.0805	0.528 ^{aA}	0.533 ^{aAB}	0.9562	0.582 ^{aA}	0.733 ^{aA}	0.1149	0.2839	0.0336*
light	0.241 ^{cC}	0.133 ^{bB}	0.1998	0.361 ^{bAB}	0.371 ^{bAB}	0.6431	0.335 ^{bB}	0.500 ^{aA}	0.0836	0.420 ^{bA}	0.283 ^{bAB}	0.1291	0.0002***	0.0470*
dull	0.304 ^{cC}	0.463 ^{aA}	0.0568	0.463 ^{aAB}	0.650 ^{aA}	0.0384*	0.483 ^{aA}	0.450 ^{aA}	0.7142	0.398 ^{bB}	0.600 ^{aA}	0.0474*	0.0001***	0.3812
dark	0.423 ^{bAB}	0.650 ^{aA}	0.0224*	0.533 ^{aA}	0.371 ^{bB}	0.0244*	0.382 ^{bB}	0.400 ^{bB}	0.8415	0.280 ^{cC}	0.200 ^{bB}	0.3415	0.0001***	0.0052**
p값	0.0001***	0.0014**		0.0007***	0.0297**		0.0001***	0.8208		0.0001***	0.0001***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그림 3>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 배색의 조화감 비교

1) 빨강치마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빨강치마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 보았다. 먼저 비비드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를 4가지 톤으로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양국 여대생은 한국의 전통배색인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톤의 빨강치마가 잘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유의차를 보인 다크 톤에서는 미국 여대생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차이를 보였다.

라이트 톤의 초록저고리와 4가지 톤의 빨강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덜 톤과 다크 톤 치마의 배색 조화감 평가에서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여대생은 덜 톤의 치마와 한국 여대생은 다크 톤의 치마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치마와도 비교적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톤에 따라서 조화감은 다르게 평가되었다. 덜 톤의 초록저고리에 4가지 톤의 빨강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만 치마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미국 여대생은 치마톤 변화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국 여대생 모두 비비드 톤의 치마와 가장 조화로운 배색으로 보는 공통점을 보였고 특히,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의 치마와, 한국 여대생은 덜 톤 치마와 다소 조화로운 배색으로 보았다.

다크 톤의 초록저고리를 4가지 톤의 빨강치마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치마와 조화가 잘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치마 톤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여 비비드, 덜 톤의 치마와 조화가 잘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다크 톤의 저고리와 비비드 톤의 치마는 양국 여대생 모두 가장 조화로운 배색으로 평가하는 공통반응을 보였으나, 덜 톤 치마와의 조합에서 미국 여대생은 조화되는 배색으로 한국 여대생은 부조화 배색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 초록저고리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빨강색 치마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초록색 저고리 톤에 변화를 준 후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비드 톤의 빨강색 치마를 4가지 톤의 초록 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비비드, 덜, 다크 톤의 저고리와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고 미국 여대생은 저고리색의 톤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을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치마에 라이트 저고리는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였으나 이들 배색을 반대로 라이트 치마에 비비드 저고리를 배색하게 되면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동일한 톤의 조합임에도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명한 비비드 빨강치마에 밝은 초록 즉 연두저고리를 즐겨 입는 전통한복의 배색에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친근한 배색이 조화를 이룬다는 Judd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라이트 톤의 빨강치마를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저고리 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다크 톤 저고리가 가장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미국 여대생은 덜 톤의 저고리는 조화되지만 다른 톤과는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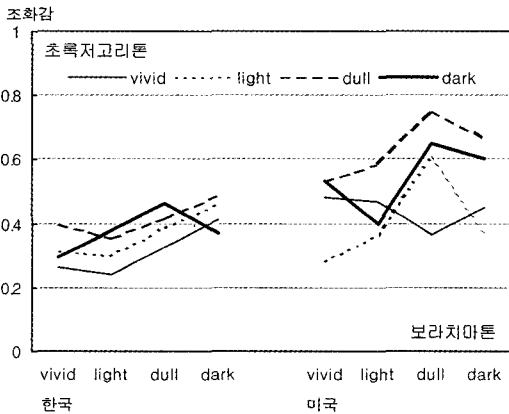
덜 톤의 빨강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미국 여대생과는 다르게 저고리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미국 여대생의 경우 라이트나 다크 톤의 초록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덜 치마와 라이트 저고리는

반대로 라이트 치마와 덜 저고리로 배색해도 매우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덜과 라이트 톤의 조합은 치마, 저고리의 면적에 상관없이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한국 여대생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덜 치마와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국 여대생은 부조화배색으로 미국 여대생은 조화배색으로 지각하였다.

다크 톤의 빨강치마를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은 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조화가 잘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차이를 보였다.

4. 초록저고리와 보라치마에 대한 조화감 비교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초록색 저고리와 4가지 톤의 보라색 치마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를 <표 5>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초록저고리와 보라치마 배색의 조화감 비교

1) 보라치마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치마색의 톤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비비드 초록저고리에 4가지 톤의 보라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크톤의 치마가 가장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대생은 덜 톤의 보라치마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여대생은 초록 비비드 저고리와 비비드나 라이트 톤의 보라치마의 배색에서 차이를 보여 한국 여대생은 미국 여대생 보다 매우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라이트 톤의 초록저고리와 4가지 톤의 보라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은 모두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 여대생은 다크 톤 보라치마를, 미국 여대생은 덜 톤 보라치마를 가장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덜 톤의 보라치마를 미국 여대생은 조화배색으로 한국 여대생은 부조화 배색으로 지각하여 양국 간에 차이를 보였다.

덜 톤의 초록저고리에 4가지 톤의 보라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크 톤의 배색을 가장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덜 톤 초록저고리에 보라치마는 톤에 상관없이 조화되며 덜, 다크, 라이트, 비비드 치마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덜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 덜 저고리와 덜 치마, 덜 저고리와 다크 치마의 배색에서 양국 간에 차이를 보여 이들 배색은 한국보다 미국 여대생이 더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다크 톤의 초록저고리를 4가지 톤의 보라치마와 각각 조합할 경우 미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과는 다르게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표 5> 초록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저고리/치마	vivid			light			dull			dark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p값	한국	미국
vivid	0.266 ^{bB}	0.483 ^{aAB}	0.0086*	0.318 ^{bcB}	0.283 ^{bb}	0.6722	0.397 ^{bB}	0.533 ^{aA}	0.1179	0.298 ^{bA}	0.533 ^{abA}	0.0062**	0.0051*	0.1262
light	0.239 ^{bb}	0.467 ^{aA}	0.0031**	0.300 ^{cAB}	0.367 ^{ba}	0.4684	0.358 ^{bA}	0.583 ^{aA}	0.0239*	0.378 ^{bA}	0.400 ^{bA}	0.8231	0.0033**	0.4100
dull	0.331 ^{ab}	0.367 ^{ab}	0.6575	0.391 ^{ab}	0.600 ^{aA}	0.0113**	0.417 ^{bb}	0.750 ^{aA}	0.0003***	0.463 ^b	0.650 ^{aA}	0.0566*	0.0116*	0.0030**
dark	0.410 ^{ab}	0.450 ^{aB}	0.6822	0.459 ^{aB}	0.367 ^{bb}	0.2846	0.488 ^{aA}	0.667 ^{aA}	0.0499*	0.371 ^{bA}	0.600 ^{abAB}	0.0182**	0.0245*	0.1276
p값	0.0001***	0.8179		0.0001***	0.0387*		0.0143*	0.4152		0.0021**	0.1520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않아 다크 톤의 초록저고리가 라이트 톤을 제외한 3가지 치마톤과는 잘 조화된다고 지적하였다. 다크 톤의 초록저고리는 비비드, 덜, 다크 톤과의 배색에서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들 배색을 미국 여대생은 조화배색으로, 한국 여대생은 부조화배색으로 지적하였다.

2) 초록저고리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보라색 치마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초록저고리 톤에 변화를 준 후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비드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4가지 톤 모두에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미국 여대생의 경우는 라이트 톤을 제외하고 덜, 다크, 비비드 톤과 조화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라이트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톤에 따라 차이는 보였으나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치마가 밝은 라이트 톤의 보라일 경우는 초록저고리의 톤에 상관없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여대생은 덜 톤 초록저고리와는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은 저고리의 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이 밝은 것 보다 어두운 덜이나 다크 톤의 저고리가 조화가 잘 된다고 지적하였고 미국 여대생의 경우는 비비드 톤을 제외한 덜, 다크, 라이트 톤의 보라치마 순으로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간에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의 보라치마를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여 덜, 라이트, 비비드, 다크 순으로 미국 여대생은 덜, 다크, 비비드, 라이트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적하였다. 덜 톤의 보라치마에 덜 또는 다크 톤의 저고리를 조합할 경우 이들 배색은 양국 간에 차이를 보여 미국 여대생이 보다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분보색 조화인 초록저고리와 보라치마의 콘트라스트 배색에서 한국 여대생의 경우 톤 변화에 따른 배색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부

조화 배색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의 경우는 조화감 평가 범위가 비교적 넓게 나타났다. 특히, 덜, 다크 톤 저고리와 각 톤 별 보라치마의 배색에서 조화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한복에서 사용하는 노랑과 초록을 저고리색으로 선정한 후 치마색이 보색 및 분보색 조화가 되도록 노랑저고리에 보라·파랑치마, 초록저고리에 빨강·보라치마가 되도록 하였다. 이 때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만 변화시킨 후, 치마·저고리의 톤이 각기 다르도록 조합한 64개의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 및 양국 여대생의 지각반응에 따른 문화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랑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의 톤 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의 수는 한국 여대생은 4개, 미국 여대생은 8개로 나타나 조화영역의 범위는 양국 간에 차이를 보였다. 노랑저고리와 보라치마의 톤을 조합했을 때,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 노랑저고리에 덜, 다크 톤 보라치마가, 라이트, 덜 톤 노랑저고리에 다크 톤 보라치마의 배색이 조화되고 비비드와 라이트 톤의 치마는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다크 톤 보라치마와 4가지 톤 저고리 모두 조화되며 덜 톤 보라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톤 노랑저고리, 라이트 보라치마와 라이트, 덜 톤 노랑저고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비교적 밝은 톤의 저고리와 어둡고 탁한 톤의 치마를 배색할 경우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여 치마를 저고리보다 짙은 색으로 입는 한복의 전통적인 배색 방법이 노랑저고리와 보라치마의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여대생은 치마와 저고리의 톤 별 조화영역의 폭이 비교적 넓게 나타나 조화-부조화 범위는 양국 간 차이를 보였다.

노랑색 저고리와 파랑색 치마의 톤 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의 수는 한국 여대생은 6개, 미국 여대생은 5개로 나타나 조화 배색수는 양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화되는 톤조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덜 톤과 다크 톤 파랑치마를 비비드, 라이트, 덜 톤 노랑저고리와 배색시

켰을 때 조화배색으로 지각하였으며,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노랑저고리와 라이트, 덜, 다크 톤 파랑치마, 다크 톤 노랑저고리와 덜, 다크 톤 파랑치마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비비드, 덜 저고리는 어떤 톤의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대체로 조화감 평가에서 한국 여대생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색이 치마에 배색될 때 조화감이 높았고 다크 톤의 저고리와는 모든 치마톤에서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노랑저고리와 보라치마의 배색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노랑색 저고리에 치마색을 보라와 파랑으로 조합할 경우 조화되는 배색수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는 색상의 특성이나 톤 조합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초록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의 톤 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 수는 한국 여대생의 경우 5개, 미국 여대생의 경우 8개로 나타나 양국 간에 차이를 보였다. 양국 여대생은 비비드 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 저고리 배색에서 조화된다는 공통반응을 보였다. 양국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한국 여대생의 경우 라이트 저고리와 다크, 비비드 톤 치마를 조화배색으로,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 저고리와 다크 톤 치마, 라이트 저고리와 덜 톤 치마, 덜 톤 저고리와 라이트 톤 치마, 다크 톤 저고리와 덜 톤 치마의 배색을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양국 간 조화배색의 범위는 차이를 보였다.

초록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의 톤 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수는 미국 여대생만 8개로 나타나 양국 간에 차이를 보였다. 미국 여대생의 경우 비비드, 라이트 저고리와 덜 치마, 덜 저고리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치마, 다크 저고리와 비비드, 덜, 다크 치마의 배색을 조화배색으로 지각하여 조화배색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나 치마톤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는 보였으나 초록저고리와 보라치마의 배색을 톤 조합에 상관없이 부조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초록저고리와 보라치마의 배색은 조화감 지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도변화에 따른 톤 조합의 영향보다 색상조합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노랑, 초록저고리의 보색 및 분보색조합이 되는 치마의 톤차이에 따른 총 64개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두 문화권의 지각반응에서 먼저 조화영

역을 보면 한국 여대생은 15개, 미국 여대생은 29개로 한국 여대생보다 미국 여대생이 콘트라스트 배색에서 조화영역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양국 간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상·하 배색의 톤이 한국의 전통배색 방법인 저고리는 밝게 치마는 어둡고 탁한 톤으로 배색될 때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명도차가 조화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Moon과 Spence의 견해가 한복에서의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초록저고리와 보라치마의 배색을 한국 여대생은 모두 부조화로 지각하였고 노랑치마와 파랑치마를 제외한 노랑저고리와 보라치마,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에서 부조화로 느끼는 배색의 범위는 미국 여대생보다 한국 여대생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 부조화 또는 조화배색으로 지각되는 정도는 구성색에 따라 다르고 이들 배색에 대한 반응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문화권에서 익숙한 배색을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조화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인 톤 인 톤 배색이나 톤 온 톤 배색, 무채색과 유채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도 조화 또는 부조화로 지각되는 배색이 구분되고 어떤 톤의 저고리색과 어떤 톤의 치마색이 조합되느냐에 따라 조화정도는 차이를 보여 조화감 평가는 배색유형이나 배색되는 색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배색도 톤과 면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서 색이나 톤이라는 낱개의 정보는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변한다는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이 지지되었다. 4가지의 배색방법에서 모두 양국 여대생은 동일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한국 여대생보다 미국 여대생이 조화를 이루는 배색의 분포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색채교육에 반영되고 실생활에서 색채의 활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에서 저고리·치마 배색을 콘트라스트 배색이 되도록 조합하여 톤의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권별로 차이를 알아보았다. 앞으로는 콘트라스트 배색의 유형을 확대시켜 조화감을 평가해 본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화감 평가시 피험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3보)-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962-973.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금기숙. (1990). 한국복식미의 탐구. *복식*, 14, 167-184.
-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 모도야끼 히로시. *조형심리입문*. 김수석 역. (1993). 서울: 지구문화사.
- 박혜령. (1996). *의복디자인 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송옥. (1996). *복식의장학*. 수학사.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715-726.
- 이정옥, 박영실, 권미정.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1)-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313-336.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여자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052-1059.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41, 258-290.
- Birren, F. (1978). *Color & Human Response*. N.Y: Van Nortrand Reinhold, 43.
- Delong M. R. (1987).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91-92.
- Goethe, J. W. (1980). *Traite des Couleurs*. S. Rihouet-Coroze, pp. XXIII.
- Moon, P., & Spencer, D. E. (1944). Area in Color Harmony. *JOSA* 34, 93-103.